

육아시설 퇴소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당사자의 의식과 욕구를 중심으로-

이 명 목*

- I. 서 론
- II. 시설퇴소청소년 현황
- III. 시설퇴소청소년의 의식과 욕구
- IV.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 V. 결 론

I. 서 론

1. 연구목적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할 때, 수용 보호중인 아동이 고등학교이하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이거나 귀가와 취업이 곤란한 20세미만의 아동이 아닌 한 17세까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간 사회복지관계자들이 궁금해 한 것은 18세에 시설을 퇴소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퇴소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무슨 생각들을 하고 지낼까?, 돕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이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 호기심과 관심에 대하여 글로써 대답해 준 사람은 지금까지 대

단히 적었고, 그나마 첫번째와 두번째의 문제에 대해선 사실조사 없는 추측에 의존하여 왔으며, 세번째 문제와 대안에는 당사자의 욕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회사업의 일반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왔기때문에 육아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의식과 욕구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한 원론적인 연구(당사자중심원칙)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아동복지 내지 사회복지계의 염원에 부응하는 최초의 접근으로서, 육아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할 수 있는 정보확보에 노력하였고 이러한 기초사실에 입각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육아시설 퇴소청소년의 퇴소당시 상황과 퇴소후 사회생활의 실태와 그들의 의식과 욕구를 탐색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간적 공간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은평천사원 총무

첫째, 시설퇴소청소년 현황을 파악한다. 최근에 육아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의 실제퇴소 연령과 학력과 기능을 조사하고,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내용을 검토한다. 퇴소청소년들의 주거형편과 취업상황 그리고 소득과 저축등을 파악한다.

둘째, 시설퇴소청소년의 의식과 욕구를 분석한다. 시설퇴소청소년의 주거에 관련된 욕구, 그들의 직업관, 결혼관, 사회관, 시설관 등을 읽으면서 시설퇴소청소년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한다. 시설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의식과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면서-퇴소준비프로그램개발, 가족관계회복, 주거생활안정지원, 상담서비스프로그램개발, 시설의 내실과 변혁을 강구한다.

3. 연구방법

육아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무엇보다도,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문지조사방법과 면접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조사는 정부와 민간지원부문에서 자료수집차원에서 이용되었을 뿐, 기존의 연구물들이 크게 미흡하여 활용되지 못했다.

퇴소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1987년부터 3년간 서울과 부산지역의 6개 육아시설에서 퇴소한 159명에 대한 취업실태조사자료와 1990년에 전국의 50개시설 20세전후 퇴소자 88명에 대하여 질문지조사를 하였다. 면접조사는 연구자가 1989년에 15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채집한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그동안 육아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가 어려웠던 것은, 이들중 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도 시설과 연락을 갖는 청소년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조사대상자와의 접촉부터가 용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9명과 88명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연구자가 육아시설실무자인 잇점과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에서 가능했다.

전무했던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면접조사가 본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나,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직업을 가진 청소년으로 조사대상이 좁혀져 부적청소년이나 학업중인 청소년들이 누락되어 계층성을 띠게 된 한계가 있다. 두번째 한계는, 면접조사에서, 소수 이루어졌으나, 시설퇴소청소년을 상대하는 사회인들을 조사하지 못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상을 관찰자적 시점에서 분석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약점이다. 본 연구의 세번째 한계는 각각의 문제와 사실에 대하여 시설청소년에게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 연구자의 한정적 능력(체험, 청문, 수집자료·정보, 유추)이 진실을 놓칠 위험이 있음이다.

II. 시설퇴소청소년 현황

1. 퇴소청소년현황

1) 퇴소현황

(1) 퇴소연령

1990년말 현재 전국의 육아시설은 223개소이고 수용인원은 20,147명이며, 시설에서 매년

퇴소하는 아동은 3,500명 안팎이다.

이들은 대개가 18세~20세에 시설을 퇴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17세이전에도 퇴소하고 있다. 조기퇴소는 조기취업에 따른 것이고, 법적인 퇴소연령 18세를 넘어 퇴소한 청소년은 대

개 법령에 의한 특례자가 아니라 18세에 행정상 수용해제조치를 받은 뒤 기술훈련이나 대학 입시 또는 취업준비 그리고 주거미비의 사유로 잔류연장이생활을 몇년간 했던 이들이다.

<표 1>

시설퇴소연령

(단위:세)

퇴소연령	17이전	18	19	20	21	22	23	무응답	합계(실수)
남	2.2	23.9	26.1	32.6	4.3	8.7	2.2	0.0	52.3(46)
여	11.9	23.8	21.4	21.4	7.1	2.4	4.8	7.2	47.7(42)
계	6.8	23.9	23.9	27.3	5.7	5.7	3.4	3.4	100.0(88)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일찍 퇴소하는 것으로 9의 취업시기와 관련이 있다. 퇴소청소년들이 과거 시설에서 생활했던 기간은 12년~15년이 53.5%로 가장 많았고 10년이상 생활한 청소년이 78.4%로 많은 아동들이 시설에서 장기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인격과 성격과 정서가 형성되는 아동청소년시기를 특수상황속에서 보낸 퇴소청소년은 시설의 물리적 생리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표 2>

시설생활년수

(단위:년)

시설생활년수	7이하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남	8.7	4.3	8.7	8.7	6.5	8.7	19.6	13.0	13.0	2.2	2.2	2.2	2.2	52.3(46)
여	11.9	7.1	2.4	4.8	2.4	14.2	11.9	16.7	9.5	4.8	0.0	4.8	9.5	47.7(42)
계	10.2	5.7	5.7	6.8	4.5	11.4	15.9	14.8	11.4	3.4	1.1	3.4	5.7	100.0(88)

(2) 최종학력과 기능습득

퇴소청소년의 최종학력은 표 3과 같이 시설 청소년들이 최하 고등학교이상을 공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시설청소년의 22.7%만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고 나머지가 실업계고교를 다닌 것은 성적의 차별도 이유겠으나 정부로부

<표 3>

최종학력

최종학력	중졸이하	인문고졸	상고졸	공고졸	농고졸	기술고졸	전문대재·졸	4년제 대학재·졸	합계(실수)
남	4.3	19.6	13.1	28.3	23.9	0.0	4.3	6.5	52.3(46)
여	4.8	19.0	59.5	0.0	4.8	2.4	7.1	2.4	47.7(42)
계	4.5	19.3	35.2	14.8	14.8	1.2	5.7	4.5	100.0(88)

터의 교육비보조여부의 문제와 '18세자립'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며, 실업계고교내에서는 성특성을 볼 수 있다.

시설폐소시 기능이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은 44.3%(남: 47.8%, 여: 40.5%)로 소지한 자격증의 수와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상과계통자격증은 정보처리1개를 제외한 28개가 주산 부기 타자이고, 공과계통은 전자 전기

설비 금속 토목 화학 등 다종의 전공분야로 다양하고, 농과는 원예 종묘이며, 기타는 서각과 조리사자격이다. 간호조무사와 운전면허와 조리사등의 자격(면허)은 고등학교졸업뒤 사설학원이나 직업훈련소에서 교육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직업준비였다.

〈표 4〉

취득한 자격증(면허)종별계

자격증종별례	상과	공과	농과	간호조무	운전면허	기타	합계(실수)
남	3.3	60.0	10.0	3.3	20.0	3.3	48.4(30)
여	87.5	0.0	3.1	6.3	0.0	3.1	51.6(32)
계	46.8	29.0	6.5	4.8	9.7	3.2	100.0(62)

(3) 폐소전 장래상담

시설을 폐소하기 전에 폐소후의 장래문제에 관하여 누구와 상담한 바가 있는 청소년은 80.7%이고, 상담을 한번도 안하고 폐소한 청소년이 18.4%(남: 13.0%, 여: 23.8%)로, 후자의 경우 마땅한 상담자가 없거나 자신의 진로와 인생관이 나뉘도록 확고한 청소년들인데 이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에 '시설폐소, 사회진출'의 굵고 깊은 단계를 혼자만의 '세계'로 만나는

것은 무리이다. 상담할 때는 원장과 총무 상담직원 시설선택이 주상담자였으며, 상담했던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청소년이 23.9%,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이들이 31.8%였다. 폐소전의 상담에서 여자가 보육사와 학교친구 상담직원과 상담한 것은 남자가 학교교사와 봉사자를 만난 것과 연령과 범위에서 비교되고 있다.

〈표 5〉

폐소전 장래문제 상담자

상담자	원장	총무	상담직원	보육사	시설선택	시설배정	학교친구	학교교사	후원자	봉사자	기타	무응답	합계(실수)
남	17.4	10.9	6.5	2.2	10.9	6.5	0.0	4.3	2.2	4.3	17.4	17.4	52.3(46)
여	14.3	7.1	11.9	7.1	7.1	4.8	9.5	0.0	2.4	2.4	11.9	21.4	47.7(42)
계	15.9	9.1	9.1	4.5	9.1	5.7	4.5	2.3	2.3	3.4	14.8	19.3	100.0(88)

(4) 퇴소시 자립자금

시설을 나올 때 정착금을 포함하여 얼마의 돈을 갖고 나왔는지를 묻은 조사에서, 월세보증금이나마 될 수 있는 50만원이상을 갖고 나온 청소년은 18.1%에 지나지 않았다. 퇴소후

에 받기도 하는 자립정착금을 보태도 사회적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일백만원 안팎의 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표 6〉

퇴소시 총 재산

(단위 : 만원)

퇴소시총재산	무일푼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남	39.1	32.6	17.4	2.2	0.0	8.7	52.3(46)
여	33.3	31.0	14.3	0.0	2.4	19.0	47.7(42)
계	36.4	31.8	15.9	1.1	1.1	13.6	100.0(88)

2)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부지원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시설퇴소청소년의 가장 큰 고충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6개 지역에(서울, 부산, 전북, 경남, 대전, 인천) 자립생활관을 건립하여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지방정부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관은 18세~20세의 육아시설 퇴소취업청소년에게 입관 자격이 주어지며, 내부주방이 있는 약 4평 규모의 방 1개를 2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사용료를 월 5천원~1만원정도를 부담한다. 선진 사회사업방법론의 하나인 'half way(to the) house'에서 착안한 'half way(to the) society' 이념으로 구상된 자립생활관은 퇴소청소년의 사회진출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주거공간 확보에 총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예방하여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준비케 하는 유용한 서비스체이지만, 수요에 대한 공급의 태부족(10% 수준임)

현상과 문화의 개념이 결여된 공간설계와 성차별이 문제이다.

대부분이 지방재정에서 지출되는 자립정착금 지원제도가 있다. 18세에 수용해제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서울에서 70만원이고 5개지방(대구, 인천, 충남, 전북, 제주)에서는 60만원, 6개지방(부산, 광주, 충북, 전남, 경남, 경북)에서 50만원, 2개지방(경기, 강원)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3) 퇴소청소년에 대한 민간지원

육아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기반을 위한 최초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사업은 1989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에서 시작되었다. 20세 전후의 무직 퇴소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들을 상담지도하는 지역간사를 활용한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1989년에 23명에게 1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65%를 취업케 했고 1990년에는 10명에게 9백만을 지

〈표 7〉

동거관계

동거관계	혼자살다	시설동기	시설선후배	부	모	외	가	친	척	무	응	답	합계(실수)
남	58.7	10.9	19.6	2.2		2.2		4.3		2.2			52.3(46)
여	42.9	4.8	19.0	11.9		0.0		4.8		16.7			47.7(42)
계	51.1	8.0	19.3	6.8		1.1		4.5		9.1			100.0(88)

원하여 70%를 취업케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에 대한 인적서비스(간사들의 상담지도와 프로그램관리)를 현실적으로 인정했고, 시설청소년들이 단순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으로 다수 취업하는 문제를 전문직으로 전환시키는 가능성을 실험 입증한 가치가 있다.

2. 퇴소청소년의 주거

우리사회 중하층시민의 제일의 과제는 주택 문제이다. 퇴소청소년들에게도 주거문제는 중요하고 부담되는 것이다. 퇴소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사회적응의 어려움이고 두번째로 어려운 것이 주거문제이다(표 27 참고).

1) 동거관계

주거의 동거관계를 조사한 표 7에서 보면, 약 절반의 청소년이 혼자살고 있으며 시설의 동기나 선후배와 같이 사는 청소년이 27.3%이다. 이에 비하여 부모나 친척과 함께 사는 경

우는 12.4%에 불과하며, 주목되는 것은 부모나 친척과의 동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2배정도 많아 가족의 결합도에서 월등하다.

현재 시설에서 보호중인 중고등 학생은 68.4%가 부모가 있고, 퇴소청소년은 37.5%가 부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친척이 있는 50명중 퇴소후 부모나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는 22%에 불과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2) 주거양식

주거양식은 기숙사이용이 적고 부모 친척과 동거하는 수가 적은 남자가 여자보다 주거비용의 부담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월세방의 경우, 40.7%의 청소년이 보증금없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으며 5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계약한 청소년이 40.7%이고 50만원초과 1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계약한 청소년이 11.1%이다. 5만원이하의 월세를 내는 청소년이 66.7%, 5만원 초과 10만원이하의 월세를 부담하는 청소년이 33.3%로 보증금과 월세의 자료로 보아 퇴소청소년들이 매우 열소하고 누추한 주거환경에서

〈표 8〉

주거양식

주거양식	기	숙	사	하	숙	월	세	자	취	전	세	자	취	부	모	실	친	척	집	부	응	답	합	계(실수)
남	17.4			15.2		34.8			17.4		2.2			2.2					4.3		2.2			52.3(46)
여	33.3			2.4		26.2			9.5		11.9			4.8					4.8		16.7			47.7(42)
계	25.0			9.1		30.7			13.6		6.8			3.4					4.5		9.1			100.0(88)

생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세방도 5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는 청소년이 91.7%로 월세방과 같이 열악한 처지이다.

3. 퇴소청소년의 직업

1) 취업시기

시설청소년이 첫번째 직업을 갖는 시기는, 59%의 청소년이 퇴소전이고 퇴소후 한달정도

에 취업하는 청소년이 22%이다. 19%의 청소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채 퇴소한뒤 최소 2개월 또는 7개월이 지나서야 첫 직장을 구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일찍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본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남자는 먼저 취업한 동기나 출신선배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여유에서 늦어지기도 하는데, 직업이나 직장을 신중히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는 일부 사례도 있다.

<표 9>

첫취업 시기

취업시기	퇴 소 전	퇴 소 후 한 달	퇴소후 2~6달	퇴소후 7달이후	부 응 답	합계(실수)
남	50.0	23.9	15.2	4.3	6.5	52.3(46)
여	69.0	19.0	4.8	4.8	2.4	47.7(42)
계	59.1	21.6	10.2	4.5	4.5	100.0(88)

2) 취업경위

첫 직장에 취업하게 된 알선경로는 시설과 학교측의 소개가 압도적으로 많아 54.5%였는데, 1989년 159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학교측의 알선 16%, 시설측의 알선 41%로서 비슷한 실

태였다. 남자는 시설과 친구소개에 의한 취업이 많았고, 여자는 학교와 학원 또는 훈련원의 소개로 취업한 것이 남자보다 많아, 여자의 취업이 남자보다 객관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 같다.

<표 10>

첫직장 취업 경위

취업경위	시설소개	학교소개	친구소개	학원· 훈련원소개	친척소개	모집광고	후원자소개	부 응 답	합계(실수)
남	34.8	17.4	21.7	4.3	4.3	8.7	2.2	6.5	52.3(46)
여	23.8	33.3	11.9	7.1	4.8	7.1	4.8	7.1	47.7(42)
계	29.5	25.0	17.0	5.7	4.5	8.0	3.4	6.8	100.0(88)

3) 시설출신신분 공개

시설출신청소년들이 구직할 때, 시설출신사실을 밝히는지의 여부도 관심이었으나 조사결과 반반의 내용이었다. 단, 많은 남자가 사회의 부정적 편견이나 자존심때문에 시설에서 자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시설출신임을 밝힌

청소년들은 정직과 당당함의 자세에서 용기를 낸 청소년이 많았다. 시설현장에서 시설청소년을 접하고 아래의 자료를 종합하면 남자는 시설신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학교관계나 취업문제 또는 대인관계에서는 자신과 시설을 연계시키는 것을 민감하게 기피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면접시 시설출신사실 고백

출신사실 고백	이야기했다	처음 몇번 이외는 안했다	안 했 다	무 응 답	합계(실수)
남	45.7	13.0	32.6	8.7	52.3(46)
여	54.8	11.9	26.2	7.1	47.7(42)
계	50.0	12.5	29.5	8.0	100.0(88)

〈표 12〉

취업면접시 시설출신 은폐 이유

은폐이유	창피하여	취직안 될까봐	동정받기 싫어	아무생각 없었다	다른 이유	합계(실수)
남	0.0	26.7	46.6	20.0	6.7	55.6(15)
여	16.7	25.0	25.0	16.7	16.6	44.4(12)
계	7.4	26.0	37.0	18.5	11.1	100.0(27)

〈표 13〉

취업면접시 시설출신 공개 이유

공개이유	정직해야 되기에	부끄럽지 않아서	동정을 바라고	아무생각 없었다	다른 이유	합계(실수)
남	26.9	38.5	7.7	19.2	7.7	47.3(26)
여	38.0	34.5	6.9	10.3	10.3	52.7(29)
계	32.7	36.4	7.3	14.5	9.1	100.0(55)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설출신이기에 불이익을 당한 청소년이 38.6%로, 많은 청소년이 사회의 냉대에 시련을 겪고 있다. 여기서의 불이익이란 어느 직장에서의 취업실패가 대개의 경우인데, 필기시험에서 우수했으나 시설출신

사실을 밝힌 면접에서 낙방했거나 면접시 부드러웠던 분위기가 시설출신을 고백하면서 돌변하거나 이해할 수 없이 간단히 중단되면서 결과가 불합격된 사례들이다.

<표 14>

구직시 시설출신에 대한 불이익 경험

불이익, 차별	여러번 있었다	한두번 있었다	없었다	무응답	합계(실수)
남	17.4	13.0	60.9	8.7	52.3(46)
여	21.4	26.2	50.0	2.4	47.7(42)
계	19.3	19.3	55.7	5.7	100.0(88)

4) 첫번째 직업

이러한 상황을 거쳐 취직하게 된 시설청소년의 첫번째 직장은 영세업체(개인영업소, 가내공업수준)가 57%, 2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가 41%로 압도적이며 대기업체는 2%에 불과한 것으로 1989년 조사에서 밝혀졌다. 직종에서는 1989년에는 생산직이 89%, 1991년에는 응답자의 5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사의 큰 차이는, 1989년도 조사는 시설측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며, 1990년도 조사는 시설퇴소청소년에게 배포한 뒤 회수된 질문지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로 보여지며, 1990년 기준으로 생산직에 근무하는 퇴소청소년이 최소 70%선일 것으로 추측된다.

남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건설현장근로자, 술집종업원, 점원, 세탁소점원, 식당종업원, 섬유공장직공, 신발공장직공, 전기회사직공, 전자회사직공, 자동차공장직공, 공업사직공, 가구공장직공, 고무공장직공, 철재구조물기능공, 경비, 건물관리인, 모터수리공, 화공약품기사, 원예사, 용접공, 운전기사, 서각사, 보조선생, 학생, 회사원 등이다.

여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빵공장생산직, 빵집종업원, 백화점점원, 공업사공원, 광학회사직공, 섬유회사자수공원, 섬유회사직공, 전자회사생산직, 금속회사근로자, 보육사, 보험회사근무, 유치원교사, 판매직, 간호보조원, 사무보조원, 사무원 등이다.

<표 15>

첫번째 직업

직업	섬유공장직공	기능공	기타생산직 차량운전	경리사무직	기타사무직 학생	판매직 서비스직	간호조무 의료기사	보육사 유치원교사	무응답	합계(실수)
남	4.3	41.3	15.2	0.0	4.3	2.2	15.2	0.0	2.2	52.3(46)
여	14.3	14.3	2.4	14.3	16.7	0.0	7.1	11.9	7.1	47.7(42)
계	9.1	28.4	9.1	6.8	10.2	1.1	11.4	5.7	4.5	100.0(88)

5) 임금수준

이들이 받는 임금은 1989년도 조사에서 20만원 미만의 월급수령자가 75%, 1990년도 조사

에서 20만원미만이 46.6%, 20만원이상 25만원미만이 27.3%로, 시설퇴소청소년의 처음과 현재의 직업이 생산직과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져 시설출신이 블루칼라계층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이직, 전직

시설퇴소청소년의 직업생활특징중 두드러지는 것이 이직률문제이다. 보사부자료에서는 1985년도 이직률이 52.7%이고, 1989년도 서울 지역조사에서는, '87~'89사이에 취업퇴소한 47

명에 대한 조사, 첫 취업 1년동안에 직장을 한번 옮긴 청소년이 23%, 두번 옮긴 청소년이 28%, 세번이상 옮긴 청소년이 11%로 첫 직장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한 청소년이 62%였다. 1990년도 전국조사에서도 1년이내에 첫 직장을 떠난 청소년은 45.5%이다.

〈표 16〉

현재의 직장은 몇번째 직장인가

몇번째 직장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무응답	합계(실수)
남	30.4	37.0	21.7	2.2	2.2	6.5	52.3(46)
여	50.0	33.3	7.1	2.4	0.0	7.1	47.7(42)
계	39.8	35.2	14.8	2.3	1.1	6.8	100.0(88)

〈표 17〉

첫직장 근무기간

근무기간	한달미만	6달미만	1년미만	1년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남	6.5	23.9	19.6	34.8	15.2	52.3(46)
여	7.1	16.7	16.7	50.0	9.5	47.7(42)
계	6.8	20.5	18.2	42.0	12.5	100.0(88)

퇴소청소년이 직장을 옮기는 이유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성에 안맞거나 월급이 적거나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적성과 장래성의 문제로 보아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직이유에 대한 시설직원과 사용자들의 의견은 청소년들이 문제삼은 사항들에 동의를 하면서도, 청소년들보다 강조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미숙함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인내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표 18〉

직장을 옮긴 이유

이직이유	월급이 적어서	기숙사가 없어서	일이 많아서	일이 어려워서	적성에 안맞아서	장래성이 없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기타	합계(실수)
남	21.3	3.6	7.1	3.6	17.9	17.9	3.6	25.0	59.6(28)
여	15.8	5.3	0.0	5.3	26.3	15.7	5.3	26.3	40.4(19)
계	19.1	4.3	4.3	4.3	21.2	17.0	4.3	25.5	100.0(47)

또 첫 직장에 입사한지 1년 내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직업조사에서 파악된 바로는, 몇번 직장을 옮기고 업종을 바꾼 청소년은 많았으나 직종간의 이동은 극히 적었다.

퇴소청소년이 직장을 옮길 때에는 동일업종

이(예, 요식업→요식업→요식업)이 22.9%이고 유사업종이(예, 인쇄업→출판업→서점) 17.1%로, 시설퇴소청소년이 이직률이나 이직이유에 서와 같이 퇴소초기직장생활에서 매우 불안정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옮긴 직장들

옮긴 직장	같은업종	다른업종	유사업종	몇번은 같은업종	합계(실수)
남	30.5	43.5	13.0	13.0	65.7(23)
여	8.3	58.4	25.0	8.3	34.3(12)
계	22.9	48.6	17.1	11.4	100.0(35)

7) 부직

청소년들의 평일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10시간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1시간정도 더 일하고 있으며, 적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제 2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갖고 있는 청소년은 9.1%로 조사되어 일부는 주업과 부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4. 퇴소청소년의 경제

1) 수입

표 20에서 보듯이, 73.9%의 청소년이 25만원미만의 월급을 받는 저임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의 첫 직장을 시작했다.

〈표 20〉

첫직장에서의 첫월급

(단위 : 만원)

첫월급	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40미만	40이상	부응답	합계(실수)
남	37.0	30.4	6.5	8.7	2.2	4.3	10.9	52.3(46)
여	57.1	23.8	11.9	2.4	2.4	0.0	2.4	47.7(42)
계	46.6	27.3	9.1	5.7	2.2	2.3	6.8	100.0(88)

비고 : 각종 수당은 포함, 보너스는 제외

본 연구에서 조사된 퇴소청소년이 주로 '86년 이후 '90년까지의 퇴소자였는데, '87년에서 '89년사이의 퇴소자 159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20만원미만의 청소년이 75%로 집계되어 시설퇴소청소년들의 사회진출 초기의 소득수준을 확

인시켜 주고 있다. 첫월급과 현재의 월급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자의 임금이 남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우리사회의 여성노동문제의 한 면이 확인되고 있다.

〈표 21〉

현재의 월급

(단위: 만원)

현재의 월급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남	10.9	13.0	10.9	15.2	6.5	21.7	21.7	52.3(46)
여	16.7	45.2	23.8	2.4	0.0	4.8	7.1	47.7(42)
계	13.6	28.4	17.0	9.1	3.4	13.6	14.8	100.0(88)

현재의 월급조사 시점은 1990년 3/4분기

2) 지출

퇴소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부문은 주거비와 저축으로 나타나 주거비부담압력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은 표 8의 주거양식

의 성별차이와 관련이 깊다. 퇴소청소년들이 과중한 주거비부담과 강한 저축필요성 때문에 교육과 문화에 빈약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 시설생활에서부터 문제되어 왔던 교육문화지진의 연속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표 22〉

지출이 가장 많은 부문

지출이 많은 부문	주거비	식생활비	교육비	문화비	저축	무응답	합계(실수)
남	43.5	19.6	2.2	0.0	32.6	2.2	52.3(46)
여	38.1	7.1	4.8	4.8	40.5	4.8	47.7(42)
계	40.9	13.6	3.4	2.3	36.4	3.4	100.0(88)

이러한 수입 지출 상호관계상에서 생활하는 퇴소청소년들은 그들의 수입이 생활하는데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4%이고, 빠듯하거나 부족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67.0%로 많은 퇴소청소년들이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저축

퇴소청소년의 87.5%가 저수입층에서도 저축

을 하고 있어 높은 저축율을 갖고 있다. 저축 금액을 밝힌 응답자의 45.9%가 30%~50%의 저축율이고 70%이상 저축율도 10.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층의 높은 저축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엔겔계수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거대하고 있는 저축의 종류로는 재형저축과 정기적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남여차가 뚜렷하여 상품의 선호성이나 저축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표 23〉

원저축액

(단위 : 만원)

원저축액	1~5	6~10	11~15	16~20	21이상	무 응 답	합계 (실수)
남	8.7	19.6	6.5	6.5	15.3	43.5	52.3(46)
여	14.3	19.0	21.4	7.1	2.4	35.7	47.7(42)
계	11.4	19.3	13.6	6.8	9.1	39.8	100.0(88)

〈표 24〉

저축종류

저축종류	계	재형저축	정기적금	일반예금	증권저축	정약저축	기 타	무 응 답	합계 (실수)
남	10.9	34.8	28.3	0.0	0.0	6.5	2.2	17.4	52.3(46)
여	16.7	47.6	11.9	2.4	2.4	0.0	7.1	11.9	47.7(42)
계	13.6	40.9	20.5	1.1	1.1	3.4	4.5	14.8	100.0(88)

III. 시설퇴소청소년의 의식과 욕구

1. 퇴소청소년의 주거욕구

시설퇴소청소년의 현실적 최대고민은 주거문제이다. 퇴소청소년들의 가계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부문이 주거비이고(40.9%), 당장의 어려움에서 첫째로 꼽힌 것이 주거문제이다(36.4%).

시설퇴소후의 주거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물은 서술식답안에 기술한 내용을 분류했을 때, 부모나 친척집에 기거하는 청소년과 기숙사생활을 하는 청소년중 다수가 답변을 하지 않아 응답자가 과반수를 조금 넘었으나, 그들의 진술은 진지해서—목돈이 드는 방언은 일이 제일의 과제이다. 퇴소한지 6개월이 되는 남자는 첫 직장인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여 월세보증금을 모았으며 보증금이 모이는 동안 여인숙에서 생활을 하였다. 퇴소청소년들이 취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어린 나이에 서툰 취사를

하여야 하기도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주거비와 저축으로 지출한 나머지 소액의 주부식비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 큰 이유이다. 일반적 의식주는 저소득으로 인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낮은 보증금의 전월세방이기에 비좁고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고 편의시설(수도물, 화장실, 난방, 주방)의 미비때문이다.

불안한 주거사정은 퇴소청소년의 정서에도 파급되어 시설을 떠나 혼자살게 된 것에 대한 외로움과, 상담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시설을 퇴소한지 4개월이 되는 22세의 친척이 많은 한 남자는 ‘혼자라는 의식에 더욱 사로 잡혀 원만한 생활의 흐름에 역류하기가 일수이며 먹고 사는 것에 정신없이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불안하다’고 심정을 털어냈고, 퇴소한지 1년이 되는 여자는 미래의 이상적인 포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퇴소청소년의 주거문제와 정서적 문제는 이들의 욕구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표 25〉

주거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주거생활중 큰 문제	돈이 부족해 방구하기 어렵다	취사	(일반적인) 의식주	취직	교육, 정식물안	기타	별로없음	합계(실수)
남	26.9	15.4	19.3	7.7	11.5	3.8	15.4	56.5(26)
여	35.0	15.0	15.0	0.0	5.0	10.0	20.0	43.5(20)
계	30.4	15.2	17.4	4.4	8.7	6.5	17.4	100.0(46)

있다. 사회복지사의 상담지도가 있는 무료기숙사제도인 자립지원시설(현존의 '자립생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청소년이 53.4%,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2.7%였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입관하겠느냐는 물음에는 남자 34.8%, 여자 23.8%만이 꼭 입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지원시설의 효용을 절감하면서도 장기간의 시설생활에서 오는 단체숙사제도의 기피현상이며 남자의 지원도가 더 높은 것은 취사나 기숙사이용등의 주거환경에서 여자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 퇴소청소년의 사회생활

1) 사회생활속에서의 난제

대부분의 시설청소년이 18세~22세에 퇴소하는데, 이들 자신은 18세의 법적인 퇴소연령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과(54.5%) 너무 빠르다

(39.8%)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어, 4할정도의 청소년이 18세퇴소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시설청소년이 18세에 퇴소 자립해야 하는 고독한 극상황은 거듭되어 왔지만 시설과 우리사회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의 틀을 정비해 오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상황속에서 이들이 퇴소하여 닦았던 첫번째 난제와 사회생활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과 당장의 어려움을 조사한 것이 다음과 같다.

주거문제는 퇴소청소년에게 늘 제일의 숙제이며, 특히 남자가 기숙사제도나 자립생활관의 핸디캡으로 여자보다 불리한 처지이다. 많은 청소년이 방문제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잠잘 방이 없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한다'등 주거문제를 호소하면서, 특히 남자의 경우는 식생활의 불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초기에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의 편견으로 고민하던 것은 사회생활속에서 자신의 이해

〈표 26〉

퇴소후 첫번째 어려움

첫번째 어려움	취직	부족한 학력, 기술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방문제	대인 관계	사회 적응	자립식 구 조	상당대상 없음	둘이상	무응답	합계(실수)
남	6.5	6.5	15.2	13.0	4.3	26.1	6.5	2.2	8.7	10.9	52.3(46)
여	11.9	7.1	11.9	19.0	14.3	14.3	0.0	3.5	4.8	7.1	47.7(42)
계	9.1	6.8	13.6	15.9	9.1	20.5	3.4	5.7	6.8	9.1	100.0(88)

〈표 27〉

사회생활의 어려움

사회생활의 어려움	방문제	경제적 빈곤	실력부족	사회의 편견	대인관계	사회적응	정서불안, 고독	기	타	합계(실수)
남	22.2	11.1	7.4	7.4	7.4	33.4	11.1	0.0		54.0(27)
여	13.0	17.4	4.4	13.0	30.4	4.4	4.4	13.0		46.0(23)
계	18.0	14.0	6.0	10.0	18.0	20.0	8.0	6.0		100.0(50)

〈표 28〉

당면한 어려움

당면한 어려움	주거문제	직장내 갈등	이직문제	이성문제	생활고	건강문제	기	타	무응답	합계(실수)
남	39.1	2.2	6.5	4.3	10.9	6.5	13.1	17.4		52.3(46)
여	33.3	11.9	2.4	11.9	9.5	9.5	11.9	9.5		47.7(42)
계	36.4	6.8	4.5	8.0	10.2	8.0	12.5	12.5		100.0(88)

와 처세로 대응하므로써 시간과 함께 경감되고 있지만, 퇴소청소년은 우리사회의 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신들을 특별인으로 또는 부정적 시각에서 상대하는 것에 비애를 느꼈다.

시설문화와는 다른 일반사회문화에 적응하는데는 여자보다 남자가 두배정도 고통스러워하고, 여자는 섬세한 대인관계를 부담스러워한다. 이것은 여자의 임기응변 적응력이 민감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시설문화에 더 깊이 젖어 있어, 남자는 사회구조적인 것에 여자는 사회생리와 연관된 상호인간관계에 봉착하여 고민하고 있다.

시설을 퇴소한 2~3년동간의 초기 사회생활에서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고독한 군상이다. 이들의 학력과 기술이 우수하여 사회에서 선택받을 수 있지 않고 가족의 위안과 격려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과 시설출신이라는 딱지에, 어린 나이에 세파에 홀로 등장한 것이 어두운 배경이다. 이들이

늘 안고 있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압박을 더 한다.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나 여러 어려운 것들을 마음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한 한 청소년의 대답에 모든 출신들이 공감한다.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은 과중한 업무를 짊어는 청소년도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대인관계와 시설출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을 들었다. 불안정한 주거생활과 불규칙한 식생활이 직장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직장내에서의 고독감도 자주 느낀다고 한다. 성장환경에 따른 특이한 언행습관을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2) 인생의 생활목표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고충과 허전한 것들이 요구조사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이 결혼가정 출신인 이들의 제일의 난제인 불안정한 정서와 주기는 이들이

〈표 29〉

제일의 생활목표

생활목표	지 위	명 예	권 력	돈	원 안 한 가정생활	안정된 직 장	사회적 공 헌	무응답	합계(실수)
남	0.0	2.2	0.0	8.7	32.6	34.8	13.0	8.7	52.3(46)
여	0.0	0.0	0.0	4.8	45.2	40.5	4.8	4.8	47.7(42)
계	0.0	1.1	0.0	6.8	38.6	37.5	9.1	6.8	100.0(88)

원만한 가정과 안정된 직장을 제일의 생활목표로 삼게 하였다. 지위·명예·권력에는 관심이 적고 부와 사회적 공헌에 약간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3) 병역

시설출신청소년에게 현역병복무가 면제되고 있는 병역제도에 대하여 남자들에게만 질문하였다. 63.0%의 청소년이 면제받기를 희망했고 그 이유는 하루 빨리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일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단위의 유형 무형의 후원이 없는 현실에 자립을 재촉하고 있다. 반면에 26.1%의 청소년은 입대하기를 원했는데 주 이유는 군대생활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3. 퇴소청소년의 결혼관

퇴소청소년들에게 결혼예정연령, 결혼방법, 성혼과정에서의 신분관계, 결혼생활의 예상등을 묻은 결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이고 낙관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으나 자신의 출신신분관계에서는 용기와 신중함을 함께 보이고 있다.

1) 결혼시기

결혼예정연령이 우리사회의 평균결혼연령보다 1~2세 낮은 것은 일반적 결혼조건(가족환경, 학력, 경제력)에서 두가지를 놓쳤지만 저축을 통한 결혼준비금의 비축시간을 갖기 위함일 수 있겠다.

결혼방법은 54.5%가 연애결혼을, 33.0%가 중매와 연애의 혼합방법을 선호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연애결혼을 원하는 경향이다. 5.7%만이 응답한 중매결혼은 남여모두에게 인기없는 방법이었는데 중매결혼이 객관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에 퇴소청소년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30〉

결혼 예정 연령

(단위 : 세)

결혼연령	23~26	27~30	30초과	무응답	합계(실수)
남	13.0	76.1	6.5	4.3	52.3(46)
여	47.6	38.1	2.4	11.9	47.7(42)
계	29.5	58.0	4.5	8.0	100.0(88)

2) 시설출신신분 공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집안에게 자신이 시설출신임을 밝힐 것인지의 문제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3.4%를 제외하고서는 과반수이

상의 청소년이 시설관계 사실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혼후 자녀들에게도 시설에서 자랐던 것을 말하겠다는 사람은 감소하고 숨기겠다는 사람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가 그렇다. 결혼당시 배우자집안을 상대하는 것과 결혼후 자녀를 상대하는 것 사이에서, 여자의 생각은 결혼은 자신의 의지대로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내 의지대로 시설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향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에게만 말하고 그 다음 시댁관계를 남자에게 일임할 수 있는 여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혼담과정에서는 최소한에서 결정하지만 자녀를 가지면서 의연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 결혼할 때 상대집안에 시설출신임을 말할것인가

시설출신 공개	말하겠다	배우자에게만 말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결혼후에 하겠다	그때가봐서	무응답	합계(실수)
남	52.2	13.0	4.3	4.3	17.4	8.7	52.3(46)
여	64.3	11.9	2.4	2.4	14.3	4.8	47.7(42)
계	58.0	12.5	3.4	3.4	15.9	6.8	100.0(88)

〈표 32〉 자녀에게 시설출신임을 말할 것인가

시설출신 공개	말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그 때 가봐서	무응답	합 계 (실수)
남	65.2	8.7	21.7	4.3	52.3(46)
여	40.5	21.4	33.3	4.8	47.7(42)
계	53.4	14.8	27.3	4.5	100.0(88)

3) 자녀수

결혼후 출산할 자녀는 22.7%의 청소년이 1명을, 61.4%가 2명을 희망하여, 가정의 화목

를 누리지 못한 시설출신들이 많은 자녀와 함께 행복을 구할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추측을 일축하면서, 소가족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자녀수에선 남자가 여자보다 1명정도 많은 수를 원한다.

4) 성역할

결혼생활에서 남자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는지의 의문에 퇴소청소년 본인들은 70%가 최소한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표 33〉 결혼생활에서 아버지, 어머니역할 수행문제

결혼에서 부모역할	잘할 수 있다	남들만큼 할 수 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실수)
남	58.7	10.9	19.6	6.5	4.3	52.3(46)
여	64.3	7.1	19.0	4.8	4.8	47.7(42)
계	61.4	9.1	19.3	5.7	4.5	100.0(88)

〈표 34〉

결혼할 때 시설출신신분이 어떤 영향을 줄것으로생각하는가

시설출신의 영향	크게 불리	약간 불리	영향 없음	도르겠다	무응답	합계 (실수)
남	19.6	47.8	10.9	13.0	8.7	52.3(46)
여	26.2	40.5	11.9	16.7	4.8	47.7(42)
계	22.7	44.3	11.4	14.8	6.8	100.0(88)

이렇게 결혼문제 전반에 걸쳐, 시설출신이라는 특색에 상관없이, 우리 한국인 평균수준의 사고를 가진 퇴소청소년이 깊이 우려하는 것은 혼담과정에서 시설출신이라는 신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1.4%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설에 있을 때나 나와서나 선배들의 결혼을 듣고 보면서 때론 자신이 사회속에서 체험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결혼불안감은 결혼적령기의 퇴소청소년에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줄 것이다.

4. 퇴소청소년의 시설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을 시설에서 살다가 퇴소한 청소년들이 '시설'을 보는 시각은 상당수준 객관적 주관성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은 시설생활이 자신에게 긍정적 기회공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시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환경과 아동들의 정서불안이라고 지

적한다. 퇴소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 시설관계자는 시설선후배와 원장과 총무와 보육사들이다. 시설병에 대해서는 현역동생들과 많은 의견의 차를 보이고 있다.

1) 시설의 의미와 가치

시설퇴소후 돌이켜 볼 때 시설생활은 청소년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의 조사에서, 부모와 사별하였거나 생이별하여 무의탁아동이었던 청소년들은 의식주와 교육을 보장해 준 시설을 유익했던 구호시설로 보통 인식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크게 높았는데, 이것은 남녀간의 집단성과 개별성의 특성으로 또 환경에 예민한 여자의 생리로 설명된다. 시설에 대한 남녀간 인식의 차이는 퇴소후 시설관계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조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5에서 다른 것을 말한 청소년들은, "시설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표 35〉

지난 시설생활이 갖는 의미

시설생활의 의미	다행스런 보금자리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다면 더 잘 되었을 것이다	나쁜것만 배웠다	다른 것	무응답	합계 (실수)
남	87.0	2.2	0.0	8.7	2.2	52.3(46)
여	66.7	9.5	0.0	4.8	19.0	47.7(42)
계	77.3	5.7	0.0	6.8	10.2	100.0(88)

많이 있었다”, “부모가 안 계셔서 우울했다”, “어릴때는 골랐으나 나이가 들수록 떠나고 싶었다”고 그늘졌던 시설말기의 생활을 진술했다.

2) 적정 아동수

1개 시설의 수용아동은 몇명이 적정하다고 퇴소청소년은 생각하는가? 80%의 청소년이

현재보다 최소 10명에서 40명이상까지는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적정한 시설수용아동수의 조사에서는 62.5%가 79명이하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시설의 중고등학생의 희망율 63.9%와 보육사의 65.4%와 비슷한 의견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소규모시설을 원하는 것은 여성의 축소지향성때문이다.

<표 36>

1개시설의 적정 아동수

(단위:명)

시설의 적정아동수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이상	무응답	합계 (실수)
남	8.7	2.2	4.3	21.7	10.9	4.3	2.2	15.2	19.6	10.9	52.3(46)
여	11.9	4.8	0.0	31.0	11.9	14.3	7.1	7.1	7.1	4.8	47.7(42)
계	10.2	3.4	2.3	26.1	11.4	9.1	4.5	11.4	13.6	8.0	100.0(88)

또 퇴소청소년은 수용아동수 조정에 있어, 현재보다 더 많아도 좋다고 말한 20.3%를 제외한 나머지 약 79.7%가 최소 10명에서 40명 이상까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평균 94명

수준의 현재 시설규모에 대다수의 시설아동과 퇴소청소년들은 불만을 갖고 대폭 하향조정하여 현재보다 소규모로 운영될 것을 바라고 있다.

<표 37>

1개시설의 수용아동수 조정범위

(단위:명)

더 많아도 좋다	10정도 줄여야	10-19을 줄여야	20-29을 줄여야	30-39을 줄여야	40이상 줄여야	합계 (실수)
20.3	12.2	12.2	18.9	14.8	21.6	100.0(74)

3) 보육사 담당 아동수

보육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아동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8에서 보듯이, 과반수의 청소년이 7명이내를 희망하고 최소 10명은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의견은 시설중고생과 직원들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어, 현행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한 보육사 1인당 아동 10명의 담당조항이나마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표 38>

보육사 1명의 담당 아동수

(단위:명)

보육사 담당아동수	4이하	5-7	8-10	11-15	무응답	합 계 (실수)
남	26.1	32.6	37.0	2.2	2.2	52.3 (46)
여	21.4	38.1	28.6	4.8	7.1	47.7 (42)
계	23.9	35.2	33.0	3.4	4.5	100.0 (48)

4) 시설내 문제

퇴소청소년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설내의 문제로는 공부방, 책상, 학습지도자와 교육지원등의 교육환경과 정서불안을 첫째로 꼽았다. 식생활에 대해서는 남자가, 집합이나 구

타등의 단체생활의 병폐에 대해서는 여자가 더 문제로 지적한다. 원장의 양육방침에는 여자만 보육사의 지도방침에는 남자만이 문제삼았는데, 시설생활에서 대화와 상호이해 정도가 주로 동성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표 39〉

시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남은숙사	식생활	교육환경	정서불안	단체생활 병폐	원장의 양육방침	보모의 지도방침	다른것	무응답	합계(실수)
남	4.3	10.9	28.3	23.9	6.5	0.0	10.9	2.2	13.0	52.3(46)
여	4.8	2.4	28.6	28.6	9.5	7.1	0.0	2.4	16.7	47.7(42)
계	4.5	6.8	28.4	26.1	8.0	3.4	5.7	2.3	14.8	100.0(88)

5) 퇴소후 연속관계

청소년들이 퇴소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 시설관계자들은 주로 시설직원과 시설선후배이다. 상담직원(원목, 생활지도교사)이 고유직분의 잇점에도 불구하고 퇴소청소년이 그를 잘 만나지 않는 것은, 상담직원이 확보된 시설이 극히 소수인 것이 주 원인이며 이들의 짧은 근무기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이 시설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의 의식주와 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상당부분 담당하여 시설아동양육에

기여해 온 후원자와의 연속관계가 이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시설측에서 이 관계지속작업을 소홀히 하였고 청소년이 자격지심에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할 때부터 아동과 후원자의 관계가 정의적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비교에서 증명되고 있다. 만나는 정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소극적인 것은 표 35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퇴소와 동시에 가능한 한 시설과의 인연을 끊으려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표 40〉

퇴소후에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원	장	총	무	보	육	사	상담직원	시설선후배	후	원	자	자원봉사자
남	73.9		69.6		63.0			28.3	87.0	8.7			13.0
여	61.9		47.6		59.5			16.7	61.9	2.4			14.3
계	68.2		59.1		61.4			22.7	75.0	5.7			13.6

6) 시설병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수용인의 정서가 시설의 특수한 구조적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낙인시 되고 있는 비규범적 행위와 태도로서 시설문화의 부정적 부분을 시설병이라 한다.

이러한 시설병에 대한 시설관계집단의 견해는 시설아동과의 접촉시간에 비례하여 (보육사-총무-시설장-자원봉사자) 중시하고 있어 보육사집단이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시설의 중고등학생들은 증후군 여부의 인정을 주저하고 있다.

이 시설병에 대한 퇴소청소년의 부담없는 판단은 후배청소년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의타심과 정서불안과 단순한 사고와 약한 발표력이다.

이것은 시설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처지가 되었고, 시설습성을 갖고 최근에 사회생활에 부딪친 체험에서 체득한 것이다. 반면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파괴적이고 책임감 없음과 거짓말하는 것과 도벽부문으로, 다른 집단과 같은 의견을 보인 것은 시설아동이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인식의 차가 있다.

시설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의미있는 것중의 하나는, 시설중고등학생과 퇴소청소년간에 견해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13가지 문제항목중 중고생이 인정한 것은 나태한 것과 주의산만과 약한 발표력 3개이지만 퇴소청소년은 전체적으로 인정하였다. 중고생이 인정한 것을 퇴소청소년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것은 나태함인데, 이는 사회속에서 부단히 고민하고 근로하는 자신들의 현실이 판단에 영향을 준듯하다.

〈표 41〉

시설병에 대한 의견

의견 내용	그런 면이 많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퇴소청소년	재소청소년	퇴소청소년	재소청소년	퇴소청소년	재소청소년
게으르다	22.7	21.2	33.0	67.4	39.8	10.6
의타심이 있다	29.5	12.1	44.3	25.8	19.3	61.0
거짓말을 잘한다	27.3	7.2	30.7	5.1	37.5	40.2
고마움을 모른다	29.5	10.2	35.2	22.3	30.7	66.7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29.5	19.3	53.4	31.8	13.6	47.7
창의력이 없다	30.7	11.7	33.0	47.0	30.7	39.0
파괴적이다	21.6	11.7	27.3	28.8	43.2	57.6
사고가 단순하다	33.0	14.4	34.1	41.7	23.9	43.2
책임감이 없다	22.7	8.0	30.7	42.4	40.9	48.5
주의가 산만하다	29.5	12.2	39.8	57.6	26.1	20.5
물품을 낭비한다	27.3	12.5	35.2	37.9	29.5	48.9
도벽이 있다	11.4	2.7	44.3	18.9	36.4	75.8
발표력이 약하다	39.8	20.5	42.0	50.0	14.8	28.8
평 균	27.3	12.6	37.2	36.7	29.7	45.3

IV.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1.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당위

우리사회의 요보호시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으로 능력의 한계가 있거나 노인으로서 유용성이 떨어졌거나 부랑인이나 정신질환자로 사회에 위해를 하거나 아동으로서 목전의 생산 효과없는 투자가 필요한 대상집단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와 사회공동책임의 소재때문이다. 특히 복지시설 아동의 경우, 다른 집단의 요보호시민들에 대한 국가 사회의 대응이 다분히 보상적인 것에 비하여 투자성 관심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1) 기능적 관점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23,450명에게 1인당 연 118만원 밖에는 보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연 276억원을 쓰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법인자부담 50여억원과 한국어린이재단의 결연후원금과 시설에 직접 전달되는 불우이웃돕기성금 80억~100억원 통합하면 약 400억원의 국력이 아동복지시설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3천명의 시설직원이 10여년씩 쏟은 노고의 결과로 시설출신청소년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빈곤하고 불안한 생활상을 파악한 현재에 우리정부와 법인이 시설아동을 온전하게 양육시켰고 자립을 지원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시설아동을 전전육성시켜 사회에 진출시킬 때, 개인의 능력발휘와 성취와 또 가정의 행복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전전육성에 실패하여 퇴소청소년이 좌절하고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거나 이탈하여 문제성인이 될 때에는 사회적 부담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것을 그리면 표 42와 같다. 기왕 아동복지시설에 60% 재정보조를 하여 온 정부가 나머지 40%를 아끼다가, 결국에는 그 몇배의 사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빈곤, 알콜, 실업 등의 사회문제와 시설출신과의 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조치는 시설복지정책의 개혁과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2) 갈등적 관점

부모의 사망으로 요보호아동이 된 아이와, 부모의 이혼·재혼·가출 등으로 요보호아동이 되어 무의탁 아동이 된 아이들이 있다. 우리사회구조는 아동의 부모문제에 촉진기능을 했고 예방과 사후조치기능은 부재하거나 비효과적이거나 마비되어 있다. 이 아이들이 독립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과 교육과 자립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의 물음에 정답은 '국가'이다. 그 아이에게 친척이 있어서 친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친척을 조사하고 책임을 확인시키고 지도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보호 지원서비스는 최저수준이 아닌 최적의 수준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최적의 서비스는 최적의 시민을 키우고 최적서비스는 우량시민을 키우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방도 하지만 요보호시민을 책임진다는 명제에 국민이 동의해서이다.

2. 시설관계 제도와 구조의 개혁

시설퇴소청소년들의 문제가 시설을 퇴소하는 몇월 며칠 그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시설에서 10년이상 성장하여 사회에 나서는 사회물살에 버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사회물살이 우리사회의 시민들로 구성된 집단인데도 퇴소청소년은 그 속에서 함께 호흡하기가 가쁘다.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에는 보폭이 너무 짧다. 사과를 준다고 하길래 손을 들었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는다. 시설아동의 호흡기능과 보폭과 키를 우리사회수준으로 고쳐주기 전에는, 퇴소청소년은 선배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

1) 시설의 소규모화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것이 방문제와 사회응용과 대인관계이다. 사회응용과 대인관계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 또래집단이 모여 사는 대규모 시설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동 청소년기를 보낸 것이 치명적인 원인이다.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가정과 학교에서 훈련받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시설아동은 가정을 박탈당했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는 아동은 소수이다. 정부에서는 시설보조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동들이 부지불식간에 감염되는 시설병, 그 시설병증후군을 최소화시키고 아동들에게 유사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선 시설이 50명이하의 단위로 소형화되어야 한다. 평균 94명 단위의 시설인원을 10명~40명씩 축소해야 한다고 퇴소청소년과 시설아동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다. 수용인원만 감축해서도 안된다. 직원의 배치기준도 개선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요구대로 보

육사 1명이 7~8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한다.

더 발전하면 육아시설운영이 각 지역사회에서 그룹홈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 일반주택안에서 직원 2~3명이 10명이내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그들의 사회응용과 대인관계 규범이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원의 전문화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원으로부터 치료받아 회복하는 것 못지 않게,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심리적 상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정서를 치유시키는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의료인이상의 전문가일 필요가 절실하다. 직원의 전문화는 시설의 숙원이기에 처방도 많다.

(1) 전문대학설립

2년제 전문대학에서는 보육사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치료사(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를 양성할 수 있다.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미흡하고, 4년제대학에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가 있으나 시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사와 치료사를 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규설립하거나 연수원의 내실을 강화하여 격상시킬 수도 있다.

(2) 병역특례

정부에서는 병역면제자를 10%선까지 확대할 계획인 바 이를 선용하여, 시설내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가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다.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와 심리학과 졸업생들에게 현역군복무에 갈음하는 일정기간 근무하는 선택권을 법제화한다.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전국 2천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면사

무소와 구·군청을 순회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2~3년간 시설에 배치하여 법인소속 사회복지사로서 근무케 한다. 이 안은 몇가지 문제점이 (소속, 지휘, 인건비 등) 있으나 대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반민반공운영체제도입에 기여하게 된다.

(4) 근로조건의 현실화

직원전문화를 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 ① 학력과 경력과 능력에 따른 보수체계 도입.
- ② 8시간 근무체제 도입. 같은 원리에서 교대근무제를 차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③ 합리적인 인원 배치. 보육사의 담당아동수는 7명으로, 생활지도교사와 취사는 아동 30명당 1인씩 배치, 경리직원 배치.

3) 시설수용기간의 제한

시설수용기간이 짧을수록 아동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아동이 입소하면 중간의 귀가조치노력없이 18세까지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 아동에게는 ① 시설병심화 ② 가족망각 증심화→가정복구불능 ③ 사회적응력약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시설입소를 결정하기 전에 가정조사를 면밀히 하여 단기수용(2년이내), 중기수용(5년이내), 장기수용을 판정하고 연고자에게는 수용해제전에 아동을 인수하는 각서를 받아 시설과 아동상담소가 공동으로 사후관리한다.

이에 더하여, 위기가정이나 결손가정에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있어 치료 회복시키는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시설의 교육능력 강화

최소청소년의 사회자립에 첫 난관은 학력과 기술과 사회적응력의 열세이다. 또 이러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내부적 열망의 결핍이다. 때문에, 시설은 아동의 열세부분과 결핍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능력을 갖춰야 한다.

1) 학력과 기술력 강화

시설들은 그간 아동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으키고 단체조직의 특성상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많이 치러 왔다. 아동들은 행사에 길들여져 왔으며, 이것이 정서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시설에 있는 동안 시설세계에 폭 빠져들어 우물안 개구리식 결과를 남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 등록금, 교복비, 체육복이나 교련복비, 보충수업료 등의 공식교육비에 대하여 전액지원을 하여 아동들의 학업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설에서는 이런 저런 행사치르는 것을 지양하고 얼마 되지 않는 시설의 총력을 아동의 학교교육과 기술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 자선시설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아동 양육 교육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시설내 학습지도 회당방법으로 시설중고등학교생들은 학습지도교사채용(34.5%), 자원봉사자지도(25.4%)를 원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 성과가 있었던 학습지도 전담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각 시설에서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아동들이 원하긴 했어도 많은 사례연구에서 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방법상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기능과 기술은 자격증취득으로 증명되는데, 시설아동들이 자격증취득을 원조하는 공사 훈

련원과 학원의 이용에 따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회적응력 강화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를 가정집 아동들은 집안 어른들의 대화속에서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자라는데, 시설아동은 잃어버린 가정때문에 누락된 핸디캡이 사회적응력의 부족으로 표면화 된다.

아동시설은 직할시와 도단위로 전국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지역협회는 지역내 시설아동의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단위로 시리즈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속에는 아동의 사회화 시설의식개선, 시설병에 대한 자각, 사회제도·규범·예절을 담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시설직원이 동참하여 시설에 돌아와서도 동일 맥락에서 교육이 반복 확인되어야 한다. 또 한 아동에게 일회성이 아닌 학년마다 참여할 수 있는 다단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3) 자아실현 의지 배양

시설아동을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직원, 후원자, 봉사자)의 공통된 견해는 ‘아이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것과, 퇴소청소년은 자립의지가 약한 점을 지적한다.

아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시설의 지도부족과 아동이 자아발견을 못했기 때문인데, 주체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모습이 시설의 참현실을 상징한다. 비전문인력, 결손가정후유증의 방지, 직원의 많은 담당아동수, 직원의 잦은 교체 등.

아동의 자아발견은 별도의 자아발견프로그램

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오랫동안 양육한 보육사의 관찰과 아동의 체험속에서 찾아진다. 그러므로 보육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아동에게는 의도적인 체험이 부단히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타의 발견외에도 아동이 성장발달단계마다 적절한 성장을 하도록 돕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직업교육은 아동의 자아실현의지 배양과 이들이 무관심한 지위와 명예부문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다 아동이 직업의 종류와 특성과 현실을 강화와 현장견학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한다. 직업교육은 시설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공통성을 가지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가 용이하고 아동들은 타 시설 아동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성장하기도 한다.

4. 퇴소전 준비

시설아동은 퇴소 1년전부터 퇴소후의 단독생활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고, 가족과 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아동은 미지의 세계에 던져지는 공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 불안한 시기의 과정을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하고 사회현장을 답사하면서 경과할 때는 심리적 안정속에서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지만, 일련의 준비작업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퇴소청소년이 자포자기하거나 쉽게 좌절하고 떠돌아 다니게 된다.

퇴소전 6개월정도에서는 시설에서 아동상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상담과정에서는 ① 취업, ② 방문제, ③ 가족문제, ④ 직장생활, ⑤ 사회생활자세 등을 일방적 훈시보다는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퇴소후의 독립생활에 대한 불안을 씻도록 하면서 동시에 철저한 생활의지를 강화토록 한다.

취업은 단순노동직으로부터의 출발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취업시기가 다소 지체되더라도 기술훈련기회와 연결시켜 준전문가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취업경위도 전문가개입빈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잦은 이직·전직이 없도록 직업과 직장의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방문제는 퇴소청소년에게 최대의 숙제이다. 이것을 청소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퇴소후의 방문제에 대비하여 용돈이나 후원금이나 아르바이트소득을 저축하도록 지도하고, 동기나 선후배가 합자로 방을 구하도록 유도하며, 전세보증금을 시설에서 대여해 주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동을 도왔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와 관계는 예의를 갖추어 처리하도록 한다.

5.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6개 지역의 자립생활관운영과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의 원조가 전부이다. 시설아동을 생으로 내쫓았다는 지탄만 면하는 수준정도이다.

1) 자립정착금 인상

주로 지방비에서 지출되는 30만원~70만원 규모의 자립정착금은 현실정에 크게 미흡하므로 최소 1백만원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국고의 부담비중도 증가시켜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2) 자립생활관 활용

아직 일부지역에만 있는 자립생활관을 퇴소아동수에 비례하여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충분히(희망 청소년의 50%를 수용할 수 있는) 건립하여야 한다.

자립생활관의 입관대상을 선정함에 여자선호 경향이 있으나, 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고 있는 남자들의 현황을 고려하여 6:4 내지 7:3의 비로 남자에게 많은 지분을 주어야 한다. 또 취업퇴소청소년에게만 주어진 입관자격을 퇴소대학생에게도 부여하여 경제적 소득이 거의 없이 고학을 하는 이들을 원조할 필요가 있다.

퇴소청소년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의 고충을 상담 지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관리직이나 총무의 직위로서가 아니라 일선 사회복지사의 직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퇴소청소년을 도와야 한다.

3) 퇴소연령의 연장

만18세의 퇴소는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인데, 직업교육이나 18세자립을 전제한 교육과 사회풍조가 전무한 실정에서 졸업직후에 퇴소하는 것은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이다.

고등학교졸업후 1년을 퇴소유예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소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4) 군복무 지원허용

퇴소청소년중 26%가 군입대를 희망하고 있다. 막상 자원입대자가 국소수라 하더라도, 병역법령을 개정하여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놓으면

시설아동의 자존심도 양양될 것이다.

6. 퇴소청소년에 대한 민간의 지원방안

퇴소청소년에 대한 민간부문지원사업은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의 연장아 기술훈련교육비지원사업뿐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특정민간단체에 의해서 특정지역청소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아산재단에서 지원했던 시설대학생장학사업은 4년제대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수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지원사업의 지역화

한반도가 좁기는 하지만 전국의 시설퇴소청소년 모두를 책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없다. 기술훈련지원은 남도지역(전남, 경남, 충남, 제주), 북도지역(전북, 경북, 충북), 중부지역(강원, 경기)등으로 나누어 아산재단 이외의

몇개 민간재단이 연합하여 수혜대상청소년을 배가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간의 이견조정은 아동시설중앙협회가 담당하면 된다.

2) 장학사업의 확대

4년제 시설출신대학생에 한정된 아산재단의 장학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 민간단체에서 시설출신 전문대학생을 위한 장학회설립이 요망되고 있다.

3) 사회사업프로그램개발

정부나 민간이나 무형의 사회사업을 기피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퇴소청소년이 요청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사회생활교육과 취업지도이다. 정부조직보다는 탄력적인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이다.